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_지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2016.09.01 ~ 2016.12.16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 시설은 깔끔하고 아주 좋아요. 다만 주변에 식당이나 놀만한 곳이 없어요. 놀려면 다운타운까지 20분 스카이트레인 타고 나가야 해요.
수업	<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 저는 LEAP5,6를 들었었는데 굉장히 학구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LEAP 프로그램 자체가 보통 캐나다에서 대학에 입학할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강하는 프로그램 이어서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 나갈지를 배우는 느낌이들었어요. 그래서 스피킹 보다는 리딩, 리스닝, 특히 라이팅을 중심으로 많이 공부했습니다. 제 레벨에서 큰 프로젝트는 에세이랑 팀 프레젠테이션 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평소에 수업이 12시 20분에 끝나는데 밥먹고 도서관가서 과제하고 6시에 집에 갔었습니다. 저희 반이 유독 많은 거일 수도 있는데 과제량은 선생님마다 다른거 같아요.
프로그램 운영	<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 밋업 프로그램이라고 외국인 학생들과 현지 학생들 만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현지 친구들을 사귀는 거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이용해 본적이 없어서 교환학생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홍보도 안하고 정보 없어요. 직접 적극적으로 학교 게시판 찾아보고 해야 참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u>현지 기후 및 유의점</u></p> <p>저는 9월부터 파견되었는데 밴쿠버가 10월?부터 완전 우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날씨 맨날 비오고 우중충 합니다. 그리고 우산 꼭 사오세요 여기 우산 완전 비싸요. 저희는 10월 말에 한 세션이 끝나고 록키투어 갔었는데요 돈 다 버렸어요.. 록키가 밴쿠버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날씨가 안좋았어서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산사태가 났대서 어디는 못가고 아무튼 날씨 상황 잘 보시고 록키투어 결정하세요! 9월 중에 시애틀이나 빅토리아 여행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p>
안전	<p><u>현지 안전 상황</u></p> <p>캐나다는 안전한 편인거 같아요! 홈리스들이 다운타운쪽에 좀 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빠르게 지나가면 되요. 근데 홈스테이 지내는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은 밤에 다니기 좀 무서운 거 같아요. 전에 가끔 12시 넘어서 집에 간적이 있었는데 엄청 어둡고 사람도 없어서 무서웠던 기억이 나네요.</p>
숙소	<p><u>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u></p> <p><u>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u></p> <p>홈스테이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중국계 캐나다인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매일 식사를 밥 위주로 주셔서 밥은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집은 학교에서 버스로 15분 정도 걸려서 먼슬리 패스를 충전해서 쓰고 다녔어요. 집도 깨끗하고 방도 아주 좋았어요. 일본인 룸메이트도(다른방 쓰는) 있었는데 같이 LEAP 수강하는 친구여서 잘 친하게 지냈습니다.</p>
식사	<p><u>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u></p> <p><u>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u></p> <p><u>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u></p> <p>아침은 보통 토스트 해먹고 점심은 그 전 날 저녁에 먹고 남은 것을 주로 싸갔어요. 그리고 저녁은 홈스테이 가족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한국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다운타운에 나가서 사먹기도 했습니다. 보통 \$15이상 쓰는 것 같습니다. 한번 외식 때 학교 가까운 곳에 소향이라는 한국 식당 있는데 직원분들 완전 친절하고 맛있어요. 가보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한국식당들 가보시면 느끼실 테지만 굉장히 불친절 합니다. 그래서 몇 번 팁도 안주고 나온 적 많습니다.</p>
교통	<p><u>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u></p> <p>통학은 버스타고 10~15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컴패스 카드를</p>

	구입하고 매달 먼슬리패스를 충전해서 썼어요! 저처럼 매일 버스 이용 안하시는 분은 그냥 우리나라 티머니처럼 그냥 충전해서 쓰시면 돼요. 먼슬리 \$91 여서 은근히 매달 지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다운타운 나가실때는 랑가라역에서 스카이트레인을 타시면 됩니다. 교통 잘되어있어요. 버스도 11시 넘어서 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00만원	
Fees		매달 용돈 50만원 썼습니다! 쇼핑 같은 것은 거의 안한 편이구요
보험료	현대해상 약 12만원	
숙소	매달 CAD 800 = 약 72만원	
식비	약 20만원	
교통비	CAD 91 = 약 8만원	
책값	X	
핸드폰	CAD 55 = 약 5만원	
합계	네달동안 거의 700만원 정도 든 것 같아요.	

5. 출국 전 준비사항

<p><i>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i></p> <p>삼푸나 린스 세면도구 같은거는 여기서 사도 비싸진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옷이 좀 비싼 편들이라서 자주 못샀어요. 입을 만한 옷들 잘 가져오셨으면 좋겠네요! 11월 12월 추워요 그러니까 두꺼운 야상이나 패딩 꼭 가져오세요. 그리고 우산 한국에 비해서 비싼 편이에요 꼭 가져오세요. 그리고 한국음식 자주 먹고 싶으니까 컵라면 같은 것도 몇 개 가져오시면 좋겠네요. 여기 H마트라고 한국마트 있는데 한국보다 꽤 비싼편이에요.</p>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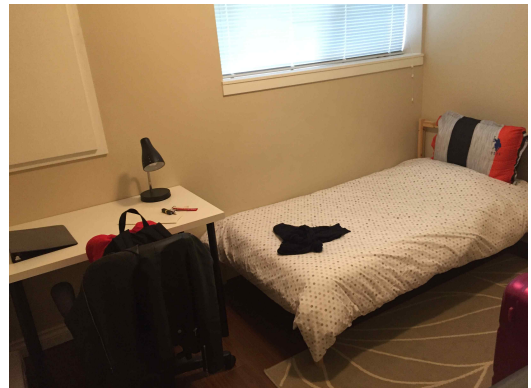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처음에 제가 랑가라 컬리지에 지원 했던 이유는 보다 더 스피킹 실력을 키우고 싶어서 였는데 랑가라 컬리지는 스피킹을 늘리기에는 커리큘럼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업에서는 주로 리딩이나 리스닝 라이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스피킹을 따로 공부할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스피킹실력을 늘리려면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고 어울려서 영어를 사용할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LEAP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영어 실력이 꽤 향상 되었다는 느낌을 받긴했어요. 특히 저는 리딩실력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 매일 리딩 숙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랑가라에 다녔던 약 4개월 동안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매일매일 과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 자유시간이 없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수업 끝나고 밥 먹고 과제하고 집가서 밥 먹고 조금 쉬다가 잠자고 학교가고 매일 이런 반복이었어서 학교생활이 재밌었던 기억은 없어요. 그래도 외국인 친구들과 의사소통 하고 어울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여행도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다운타운



홈스테이 방



저녁



가족들과 진저브레드 하우스 만들기



Leap 친구들과 나이트마켓



록기투어중 레이크 루이스